



순결·진실·용기

大 稜

1

제161호 2013년 10월 4일(금)

발행인 : 강창희 (44회)
편집인 : 김순식 (51회)
편집·제작 : 총동창회 사무국
발행처 :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대전고 동창회관 2층)
TEL(042)257-0005 FAX(042)257-0518
홈페이지 : www.daego.kr
E-mail : obdk@daego.kr

大田高等學校總同窓會報

大稜人, 서울 남산 품는다

10월 27일(日)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



△ 사진은 2012년 10월 보문산에서 열린 대능가족 등반대회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가 오는 10월 27일 일요일에 재경동창회 주최, 총동창회 후원으로 서울 남산공원에서 열린다.

재경동창회는 이번 등반대회를 전국 각지의 동문과 동문가족이 남산의 가을정취를 느끼며 친목을 도모하고 대능인의 단결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등반대회는 예년처럼 높은 산을 오르는 대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외국인 선호도 1위 관광지인 높이 262m의 남산으로 정한 만큼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대전에서 출발하는 동문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해 놓았다. 대전동문들은 오전 6시 30분까지 모교에 집결해 오전 7시 정각에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므로 집결시간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재경동문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광장에 모이면 된다. 한옥마을에는 주차시설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하철 3,4호선 3,4번 출구)

행사는 한옥마을 광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명찰 및 참가기념품을

배부한 후 10시에 한옥마을 후문을 지나면서 시작한다. 등산코스는 아치교, 와룡묘, 목격산방, 소월시비, 남측 순환로, N서울타워, 팔각정, 북측 순환로를 거쳐 동국대 등산로를 따라 동국대로 내려가는 것으로 정했다.

동국대에 도착한 동문들은 낮 12시부터 동국대 구내 학생식당인 상록원(2층)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식당이 한꺼번에 4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므로 행사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식당에 도착하는 순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식사를 마친 동문들은 등반대회 기념식장인 만해광장으로 가 휴식을 취한 후 그곳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기별모임을 한다. 기별모임을 위한 주류 및 안주류는 재경동창회에서 준비하여 제공하니 기별동창회에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기별모임이 끝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기념식 및 행운권 추첨 등을 한 후 오후 3시 30분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校歌 개정 없던 일로...

설문결과 동문 대다수 개사 반대
모교, 총동창회의견 반영 개정 철회

모교가 가사 일부가 개정된 교가의 사용을 철회하고 원 교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모교는 지난 1월 총동창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교가 가사 일부를 개정했었다. 2월 졸업식에서 이 사실을 알게된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으니 개정된 교가 사용을 7월 말까지 보류해 달라고 모교에 요청한 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문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교가 가사 개정에 대해 동문들의 찬반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답변자 810명 중 550명(67.9%)이 개정반대, 256명(31.6%)이 개정찬성, 4명(0.5%)이 기타 의견을 보내왔다.

총동창회는 모교에 위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고 교가가사 개정을 반대하니 참고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모교는 교직원회의를 열고 총동창회의 교가 개사 반대 의견을 안전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총동창회의 의견에 따라 개정된 교가 사용을 철회하고 원 교가를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60호 동창회보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듯이 총동창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교교가 가사 개정논의에 중지를 찍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다수 동문들과 모교의 의견에 따라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위직 및 단체장 취임 축하연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은 6월 18일(화) 저녁 6시30분 대전 선화동에 위치한 탑집식당에서 고위직 및 단체장 취임 축하연을 열었다. (사진)

이날 축하연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기관, 회사의 고위직과 각종 단체장에 취임한 동문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해 12월 새누리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운룡(59회) 국회의원, 지난 3월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변재상(61회) 동문 등 고위직 및 단체장 21명이 참석했으며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 김현규(53회) 모교교장, 박성호(52회)·이명수(52회)·이장우(63회) 국회의원 등 총동창회·재경동창회 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해 주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축하연에서 강창희 총동창회장은 "우리 동문들이 앞으로도 한마음 하나가 되어 더 많은 동문들이 고위직 및 단체장에 오를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울 것"을 당부했다. 신현일 재경회장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학생에 대한 일대일 결연장학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1급 이상 고위직 모교출신 15명 전국 2위

청와대와 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369명의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모교가 15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1위는 18명을 배출한 경기고가 차지했고, 경북고가 모교와 같은 15명, 서울고 13명, 광주제일고 11명 순이다.

검찰, 경찰 등 4대 권력기관 고위직은 전국 7위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 152명 중 모교출신은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50명 ▲경찰청 본청 국장급 이상 및 16개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고위직 33명 ▲국세청 본청 국장급 이상 및 6개 지방국세청장과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의 주요 국장급 이상 등 국세청 고위직 36명 ▲감사원 감사위원 및 국장급 이상 등 감사원 고위직 33명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 152명의 출신지를 조사해 7월 19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2명의 출신고교는 경북고 8명, 대구고·전주고 각 7명, 광주제일고·진주고 각 6명, 검정고시 5명에 이어 모교가 4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 대전·충남에서는 모교를 제외하고 공주사대부고가 2명으로 공동 15위에 올랐다.

2013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 성료

재경에서 250여명 등 총 1000여명 참가

‘2013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5월 25일(토) 오후 4시 모교 강당에서 동문 및 동문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는 ‘동문가족 장기자랑’, 1부 정기총회, 2부 만찬, 3부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열린 동문가족 장기자랑에는 35회부터 59회까지 동문 및 동문가족 9팀이 참가하여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장기자랑에 이어 열린 정기총회 시작과 함께 시상한 올해 ‘자랑스러운 대능인상’은 김각영(41회) 前 검찰총장이 수상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찰을 이끌어 국법질서 및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검찰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크게 공헌했으며 재경동창회장과 충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진 시상에서 모교 교사 재건축에 기여한 공로로 서용주(54회) 동문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동기회와 충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수병(41회), 강명구(48회), 이운환(57회), 이기동(68회), 박준일(69회) 동문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안전심의 순서에서는 2012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에 이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의 최다참가기상은 45회(43명), 58회(50명), 60회(33명)가 차지했다.

5월의 화창한 주말에 모교를 방문해 한마당잔치에 참석한 동문들과 재경동창회를 비롯한 지역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특히 아침 일찍 버스 4대에 나눠 타고 행사에 참석한 180여명과 개인 승용차로 내려온 70여명 등 행사에 참석한 250여 재경동문과 참석을 독려하느라 수고를 많이 한 재경 기별 회장·총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55, 56, 57회 동창회
대능지 발행비용 지원

이번 161호 대능지 광고는 55회 동창회(회장 김갑동, 재경회장 서정선)와 56회 동창회(회장 남복현, 재경회장 조동인) 그리고 57회 동창회(회장 서대석, 재경회장 박상규)에서 맡아 대능지 발행 및 발송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광고료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수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별동창회에서 광고를 맡는 전통을 이어가는데 협조해 주신 55, 56, 57회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능지 광고는 지난 142호부터 2~3개 기수가 연합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맡고 있습니다.

다음 162호 광고는 58, 59, 60회가 맡을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정기총회
기별분담금 납부현황

2013. 9. 26. 현재 (단위 : 원)

기 수	금 액	비 고
43	600,000	
44	1,200,000	
45	1,200,000	
46	1,200,000	
47	1,200,000	
48	1,200,000	
49	1,200,000	
50	1,200,000	
51	1,200,000	
52	1,200,000	
53	1,200,000	
54	1,200,000	
55	1,200,000	
56	1,200,000	
57	1,200,000	
58	1,200,000	
59	1,200,000	
69	1,200,000	
합계	21,000,000	

2013년 정기총회 협찬금 현황

2013. 9. 26. 현재 (단위 : 원)

*현 금

기수	성명	납입액	직책	비고
30	이종윤	300,000	前 공무원	
33	박종윤	1,000,000	(주)세창 회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35	조준호	100,000	(주)제일COM 대표이사	
35	이동호	200,000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회장	
37	이규성	300,000	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37	김종두	300,000	前 교육공무원	
38	김정배	200,000	前 공무원	
38	이동호	100,000	前 교육공무원	
38	조봉연	200,000	조치과 원장	
41	김각영	1,000,000	김각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전기금 지정기탁
44	김명수	900,000	김명수치과 원장	
44	송화순	300,000	대전한자한문연구원 이사장	
45	홍승원	300,000	대전기독교양병원 원장	
47	박용범	500,000	(주)중앙개발 대표이사	
47	유한식	300,000	세종특별자치시장	
48	유완준	500,000	세우건설산업(주) 대표이사	
48	이종철	500,000	(주)위드하나 대표이사	
49	김원명	200,000	대전외교 교장	
51	김순식	1,000,000	충동창회 사무총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51	송영호	500,000	금강주유소 대표	발전기금 지정기탁
51	임범수	1,000,000	(주)드림종합건설 대표이사	발전기금 지정기탁
51	황인방	2,000,000	대전시의사회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52	유하용	100,000	파랑새기획 대표	
52	이명수	300,000	국회의원	
52	홍종오	500,000	중오당약국 약국장	
53	김현규	1,000,000	모교 교장	
54	권태원	200,000	(주)나노기술 대표이사	
56	구자현	3,000,000	조달청 차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56	김용욱	1,000,0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 대표	발전기금 지정기탁
56	송인수	3,500,000	산업은행 충청본부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56	여형구	3,000,000	국토교통부 2차관	발전기금 지정기탁
56	유재명	1,000,000	홍성 유재명피부과 원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58	문성식	300,000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58	이 형	500,000	리플리워 대표	
61	남궁은	200,000	(주)신승이앤씨 대표이사	
61	변영규	500,000	대전육농회연합회장	
63	김경남	500,000	정다운플라워 대표	
63	이보행	500,000	대원광고기획 대표	
64	김성남	200,000	(주)보명코스메틱 대표이사	
재경동창회		1,000,000		
청주지회		500,000		
교능회		500,000	대전지역 교육계 동문모임	
삼금회		1,000,000	전현직 동문 기관장 모임	발전기금 지정기탁
대동모		1,000,000	대전고 동문의 동문을 위한 모임	발전기금 지정기탁
대덕구 육농회		500,000	대덕구 거주 61~69회 모임	
합계		50,230,000		

*물 품

기수	성명	협찬물품	상당액	비고
45	김윤식	맥스 골프스윙배트 5개	60만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0	장운선	식당 '계룡마루' 식사권 10장	20만원	식당 '계룡마루' 대표
52	전종구	대전시티즌유니폼 50벌, 씨인공 20개	250만원	대전시티즌 사장
53	임용철	한방소화제 200개	200만원	대전대학교 총장
55	박근태	소주 600병	70만원	(주)선양 대표이사
56	김용욱	'스페이스 연' 공연티켓 10장	70만원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 대표
63	이보행	골프우산 20개	30만원	대원광고기획 대표
64	박종열	충남대 '홍삼진골드' 10세트	60만원	(주)메디바이오 식품생활사업부 이사
70	정정목	안주접시 600개	10만원	보림살업(주) 대표이사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기념타올 250장	100만원	
내집사랑		증약막걸리 2말	10만원	

*화 환

기수	성명	직책
33	박종윤	대능정학문화재단 이사장
46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47	박용범	대전중학교충동창회장
51	김순식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회장
51	황인방	국제라이온스 356-B지구 총재
53	김현규	모교 교장
54	서만철	공주대학교 총장
66	이종민	(주)메디스타 이사
김경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심금옥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충동문화장

충동창회회장단 · 기별회장단 연석회의

충동창회 · 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9월 24일 저녁 6시30분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김용환 34회 회장, 박준일 69회 회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27일 서울 남산에서 열리는 2013 대능가족등반대회에 대전에서 400명 이상 참석하도록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도 인현만 42회 회장은 유명무실해진 일백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충동창회에서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신중호 49회 총무는 모교 사료관이 비좁고 사료역시 빈약하며 충동창회 차원에서 사료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동창회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만찬을 즐겼다.

뜨거웠던 교가개정 찬·반 양론... 그래도 우리는 '하나'

모교교가 가사 개정 관련 토론회가 6월 26일 저녁 6시 30분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개정 찬성 측 패널로는 장흥기(42회) 전 서양수산 대표, 김진원(53회) KBS 앵커, 임도혁(59회) 조선일보 충청취재본부장이 나섰으며, 개정 반대 측 패널로는 이계상(36회) 전 모교교사, 오광웅(40회) 전 모교교감, 민찬(56회)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박건영(42회) 충동창회 고문,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김현규(53회) 모교교장을 비롯해 30회 송주섭 선배부터 77회 조원휘 · 이진행 후배까지 70여명이 참석해 패널들의 토론을 지켜본 후 청중 토론 시간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개정 찬성 측 패널들은 우리 교가에 굳이 '장백'이라는 중국식 명칭을 쓸 필요가 없으며, 우리나라에도 본받을 위인이 많은데 굳이 부도덕한 당 현종을 섬긴 중국 장수 '남팔'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범출 줄' 등 현대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되는 몇몇 단어만 고칠게 아니라 이참에 시대정신에 맞게 교가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반대 측 패널들은 '장백'은 '백두'와 더불어 이전에 우리가 쓰던 명칭이고 그곳이 과거 우리 땅이었으므로 그 명칭을 쓴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남팔'은 중국 장수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상징하는 내용과 운율이 중요하므로 그 단어를 바꾸면 가사의 맥락이 흐트러져서 안 되며, '범출 줄' 등 현대 어법에 맞든 맞지 않든 그 단어가 쓰인 의도를 살펴본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패널 기조발표와 상호토론에서 찬반 양측으로부터 어떤 합일점도 찾을 수 없었지만 가사 일부를 고치려면 차라리 전면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2시간여 진행된 토론회가 끝난 후 동창회관 근처 식당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토론이 이어져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 교가개정을 놓고 열띤 격론이 벌어졌던 동창회관 회의실. 그러나 그 열기는 모교사랑으로 뜨거웠다.



70대 기수 활성화 60회가 이릅니다

60회 동창회가 졸업30주년 기념식 당시 70회 이후 기수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고 기탁한 기금 500만원 중 72회 동창회에 대한 기금 전달식이 9월 2일 오후 2시30분에 동창회관에서 있었다.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충동창회에서는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김순식(51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60회에서는 박수용 총무가, 72회에서는 조명휘 회장과 이인복 졸업2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이 참석했다.

56회 김용욱

동창회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동창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충동창회에 동문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용욱(56회) 동문이 1000만원, 구자현(56회) 조달청 차장이 300만원을 기탁했다.

해외에서도 동참해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진두(35회) 동문이 미화 200달러(226,000원)를 발전기금으로 보내왔다.

그 밖에도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 시 협찬금까지 포함하면 기금 조성에 동참한 동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강창희 충동창회장은 발전기금 조성에 동참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동문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로 잡습니다

2013년 5월 3일 발행한 대능지 제160호 4면 '2차 신입입원 · 기별회장단 회의' 기사에서 정호영, 조주찬 동문의 졸업기수를 32회로 잘못 적었습니다. 두 분은 31회입니다.

같은 면 '원로 · 고문 · 교장 초청 오찬' 기사에서 조완규 동문의 졸업기수 29회는 26회의 오기이므로 정정합니다.

15면 자문위원성금 납부현황에서 48회 오승균 자문위원이 납부한 성금은 200,000원이 아니고 300,000원입니다.

같은 면 발전기금 납부현황에서 이상현 부회장의 졸업기수는 48회가 아니고 49회입니다.

오기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충동창회 사무국은 앞으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교 100주년에 **담을 대전고의 발자취를 찾습니다.**
추억에 묻힌 우리들의 역사를 되살리는데 동참합시다!

2017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대전고가 지난 역사를 찾습니다. 졸업앨범, 사진, 교과서, 교복, 모자 등 자료를 기증해 주십시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대전고 동창회관 2층) 대전고등학교충동창회 ☎ 042-257-0005

금년 1對1 결연장학금은 1억 6천만원



재경동창회에서 주관하는 일대일 결연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 이철재(51회) 부회장, 김용덕(56회) 사무처장과 윤성렬(44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김현규(53회) 모교교장을 비롯

한 교직원 그리고 수여대상자인 재학생 94명과 학부모 등 총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7층 다목적실에서 거행되었다. (사진)

이날 전달된 결연장학금은 모두 94구좌 1억5980만원으로 지금까지 전달한 장학금 누계는 961구좌 15억48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003년 시작된 결연장학사업은 재경동창회의 주력사업이면서도 항상 아쉽기만 했던 점이 있었고 기금을 기부한 동문들도 장학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경동창회 집행부는 김현규 교장의 “결연장학금과 선배들의 관심 그리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대전고에 지원하는 것인 만큼 결연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는 말을 듣고 결연장학사업 지속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아성장학재단, 10명에 장학금 전달



아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9월 11일(수) 신현일 재경동창회장과 권오상(49회)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이

사 10명과 장학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성테크노빌딩 5층 재단사무실에서 거행되었다. (사진)

아성재단은 작년에 모교를 졸업하고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올해에는 작년 대상자와 올 신입생 5명을 포함한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아성재단은 장학생끼리 서로 자주 만나 격려하고 선배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을 학기별로 하고 있다.

이번 2학기 수여식에는 신현일 재경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아성장학재단은 재경동창회의 일대일 결연장학금도 6구좌씩 지원하는 등 후배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 비가 와도 즐거운 골프! 그래도 더 기쁜 것은 동문과의 만남과 이야기이다.

빗속의 재경골프대회 170명 참가

2013 재경대전고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9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캐슬파인GC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심대평(38회)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비롯 70회까지 150여명의 동문과 15명의 스태프, 연예인들이 참가했다. 또 총동창회 대능골프회 회원 21명도 버스를 대절해 대회에 동참했다.

이날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56회, 준우승은 54회가 차지했으며 최다참가기상은 28명이 온 68회가 받았다. 개인전에서는 손국배(49회) 동문이 우승 트로피를 안았고 준우승은 박영상(63회) 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5번 홀에서 참가자들이 일대일 결연장학금으로 229만원을 내놓았다.

이날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메달리스트 : 육동원(58회)
- ◆ 룡기스트 : 오위영(68회)
- ◆ 니어리스트 : 박명재(60회)
- ◆ 다비디상 : 김선진(55회), 안희용(60회), 이광우(63회)
- ◆ 다과상 : 강인구(54회), 김현채(68회)
- ◆ 다보기상 : 김병곤(63회)
- ◆ 행운상 : 김가열(68회)
- ◆ 특별상 : 부인팀(60회, 70회)



제3차 임원 및 각 회장단 연석회의

재경동창회 임원 및 기별·직능·지역·동호인 회장단 연석회의가 6월 28일(금) 충무로에 있는 대림정 3층 대극실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회의에는 31회 정호영, 조주찬 선배님부터 80회 김도균 후배까지 40여명이 참석하여 안전처리 등에 적극적인 토론을 하였다.

특히 새로 결성된 72회 재경동창회의 양우영 회장과 신광순 총무가 참석하여 선배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신현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대일 결연장학금에 대해 설명한 후 장학금을 지원해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며 결연장학금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활동 및 결연장학금 보고, 상반기 결산보고, 임원회의의 규정 개정, 미래발전위원회 규정 및 기금관리규정 제정 등 회칙개정안 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안내 등이 있었다.



재경회장 11년 된 삼수회 방문

신현일 재경동창회장이 6월 19일 저녁 7시에 여의도 신동양반점에서 모임을 하고 있던 삼수회를 방문해 격려했다. (사진)

여의도 인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동문들의 모임인 삼수회는 모임을 시작한 지 여인 11년이 되었다. 50대 이후 기수들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10년이 넘으면서 젊은 기수들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어 재경동창회의 자생조직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모임이 되었다.

회장은 김성남(55회) 동문이 오랫동안 맡아오다 올해 송인규(58회) 동문에게 인계를 했고, 총무도 방순태(65회) 동문이 오랫동안 수고한 후 김금배(66회) 동문에게 넘겨줬다.

신현일 재경동창회장은 조석준(51회) 기획부회장, 김용덕(56회) 사무처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동창회 활동을 당부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송인규 삼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삼수회 발전을 통해 동창회에 기여하는 모임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모임에는 신현일 재경회장부터 이지원(82회) 동문까지 80여명이 참석하여 선배배간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모삼목회 + 사목회 = 공직자회

대전고 공직자들의 모임 중 광화문의 ‘한모삼목회’와 과천의 ‘사목회’가 통합하여 ‘대전고 공직자회’로 거듭나는 교례회가 지난 6월 21일(금) 저녁 7시 광화문에 위치한 중국식당 ‘도화림’에서 있었다. (사진)

이날 모임에는 많은 선배배 전·현직 교직원들이 참석해 서로의 근황을 묻고 정보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병석(49회)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모임을 축하해주었다.

‘대전고 공직자회’ 9월 모임은 9월 24일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과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 김각영(41회) 상임고문, 박병석(49회) 국회부의장, 김현규(53회) 모교 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덴타 19층 대홀에서 열렸다.

강창희 총동창회장은 그동안 국가에 봉사했거나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 동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잘 단합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현일 재경동창회장은 동문 공직자들의 발전을 기원한 후 향후 동창회 일정을 소개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전원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 짧지 않은 시간을 즐겁고 보람되게 보냈다.

개교 96주년 대전고
다시 뭉치는 대능인

黑白手談 단체전 우승 54회

재경회장배 친선바둑대회, 한국기원서 180여명 참가

재경동창회장배 동문친선 바둑대회가 지난 6월 6일 홍익동 한국기원 본원 2층 대회장에서 재경기우회(회장 51회 강직수, 총무 60회 임관순) 주관으로 18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단체전에서 우승은 54회가, 준우승은 48회 A팀이 차지했으며 49회와 60회가 3위를 했다.

개인전 A조에서는 김광재(38회), 유진열(50회) 동문이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B조에서는 서지원(54회), 조수행(46회) 동문이, C조에서는 이정배(48회), 손광기(51회) 동문이 우승,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최다참가기상은 17명이 참가한 46회가 차지했다.



▲ 한국기원에서 열린 바둑대회. 동문들의 우애는 흑과 백의 색깔만큼 선명했다.

재경, (주)페이팔유통과 업무제휴

재경동창회는 부족한 운영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동문기업 중 유일한 사무용품 유통업체인 (주)페이팔유통(대표이사 김대현, 60회)과 지난 7월 사무용품 공급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업무제휴로 재경동창회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동문기업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동창회에 기여하는 기부문화에 동참하며 (주)페이팔유통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해 3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동창회 수익사업에 여러 동문들이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213,575원의 첫 번째 결실을 보았다. 협조해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동문기업 기부현황

(단위 : 원)

성명	기수	업체명	매출액	기부액
이상현	49	주식회사 두루셀텍	194,650	3,893
		(주)두루약품	744,800	14,896
		두루케미칼(주)	200,950	4,019
고길석	52	진영코리아	72,900	1,458
오선영	55	파라다이스산업	1,910,850	38,217
조동인	56	해커스어학원	3,321,845	66,437
		해커스종로	1,039,796	20,796
		패스닷컴	525,000	10,500
박승태	59	피제이디자인	311,570	6,231
윤여송	60	사랑의 교회	81,130	1,623
정진형	60	유클릭	121,800	2,436
최기남	60	천지세무법인	2,153,455	43,069
합계			10,678,746	213,575

누락된 동문께 죄송합니다

재경동창회는 ‘천하대교’ 2호 표지 중 전직 회장단에서 지현택(21회) 7대 회장이 누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동창회는 또 지난 6월 발행한 ‘일대일 결연장학금 책자’에서 누락된 장학금 기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 ◆ 31회 김용우 : 2013년 170만원 납부 합계 340만원
- ◆ 39회 윤행길 : 2003년 140만원 납부
- ◆ 51회 강창근 : 2013년 170만원 납부
- ◆ 60회 이명섭 : 2012년 170만원 납부 합계 340만원

‘재경의 축’ 오능회·육능회 청계산 오르다

재경동창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오능회와 육능회가 5월 11일 오전 9시에 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산 일원에서 합동등반대회를 가졌다.

오능회는 3년 전 청계산 원터골에서 강창희(44회) 고문을 모시고 50여명의 회원들이 산행을 하며 오능산악회를 결성한 이래 그동안 몇 차례 산행을 가졌었다. 작년에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버스를 임차해서 무의도, 실미도를 거쳐 돌아오는 산행 겸 야유회를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합동산행에서는 맑고 청명한 날씨에 전날 내린 비가 신록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휴식의 부드러움을 마음껏 맛보았으며 산행내내 선배들의 즐거운 대화가 청계산을 수놓았다.

이날 강창희 총동창회장과 신현일 재경동창회장의 참석을 계기로 오능회와 육능회 회원들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70회 이후 동문들도 다수 참여하여 선배들의 활약상을 보고 칠능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화이팅을 외치며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는 오능회·육능회 회원들

회원명부 최종 편집 중 “곧 발간됩니다”

재경동창회가 2012년부터 진행해온 회원명부 발간작업이 명함광고 대상자 3,000여명에 대한 주소 재확인 작업을 마치고 최종 편집에 들어갔다. 편집을 마치는 대로 즉시 인쇄에 들어가 10월에는 광고를 게재한 동문들에게 책자를 배송하게 된다.

명부를 배송 받는 광고게재 동문들은 아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재경동창회는 기별 회장·총무들이 명부를 구입하고자 하는 동문들을 파악해 주기를 당부한다.

- 명부 대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88041-04-282278) 재경대전교동창회

- 명부 대금 : 광고게재회원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회원명부 판매 및 수금 실적이 우수한 기수 및 총무에게는 별도의 시상계획이 있다.

재경동창회는 회원명부 발간작업에 들어간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권당 제작단가는 46,000원이라고 밝혔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명부 구매를 부탁드린다.

회원명부 발간비용

(단위 : 원)

구분	금액	담당	비고
편집 및 주소록 파악 (텔레마케팅)	140,000,000	시대공감	보존 합의
인쇄비	46,507,800	(주)팩컴코리아	
택배 등 발송비	15,000,000		견적 중
주소 재확인 비용	2,500,000	사무처	대상자 3,000명
예비비 등 기타 (경비)	3,000,000	발송비, 포상 등	
계	207,007,800		

재경 금년도 행사 향후 일정 안내

◆ 임원, 기별회장·총무, 지역·직능별 회장·

총무단 연석회의

• 일시 : 10월 11일(금) 19:00

• 장소 : 대림정 태극실 (총무로)

• 안건 : 대능가족등반대회, 대능인의 밤 (송년회) 관련

◆ 추계 조찬강연회

• 일시 : 11월 5일(화) 07:00

• 장소 : 프리마호텔

◆ 재경대능인의 밤(송년회)

• 일시 : 12월 11일(수) 17:30

• 장소 :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제32회 재경동창회 추계 테니스대회

• 일시 : 10월 20일(일) 10:00

• 장소 : 서울대학교 테니스장

• 주관 : 재경동창회 테니스회

(회장 49회 박희영, 총무 54회 송석홍)

수습임금제, 알바에 악용하는 업주 많다

재학생 정책동아리팀 고용노동부에 대안 제시

모교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모교 정책동아리 '크레아토르 P' (2학년 김기준 외 13명)는 고용노동부 'TTT 알바지킴이팀' (1학년 박상표, 송민섭 외 4명)과 함께 지난 8월 16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시의원, 노무사,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법이 아르바이트 수습임금제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내놓았다.



▲ 4860원은 말 그대로 최하한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크레아토르 P'의 리더인 2학년 김기준 군은 토론회에서 "아르바이트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데 수습 기간이 꼭 필요한가"라고 물으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편의점 등이 수습이라는 굴레를 씌워 4500원 선에 그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1년 이상 고용할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기간 단순업무를 맡는 아르바이트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노무사는 "수습임금제는 할 수도 있다는 입의 규정인데 강제 규정처럼 악용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게 좋다. 항의했다가 해고당할까 우려하는데 이런 보복 행위는 노동법에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TTT 알바지킴이팀은 지난 7월 25일 개신 축구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모교 학생들의 정책대안 제시 후 고용노동부는 수습임금 규정이 악용되는지 뒤늦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대전고 '또래조정자'란 말 아십니까?

모교 24명 임명,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 해결 역할 수행

모교는 지난 9월 4일 음악실에서 또래조정자 임명식을 갖고 2학년 손영진 학생을 대표로 1,2학년 각 학급에서 한 명씩 총 24명을 또래조정자로 임명했다. 또래조정자는 친구들 간에 학교폭력, 분쟁, 왕따가 발생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된 조정자들은 교실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는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가장



▲ 왕따없는 학교! 또래끼리는 툭 터놓고 말도 잘하지요.

먼저 알아챌 수 있고, 그 해결에 대해서도 조기에 개입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갈등(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김현규 교장은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또래조정자들이 조정활동을 통해 학교 내 갈등을 대화, 토론 등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해 건전한 또래문화(Peer Culture)형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고의 차별화된 자율형 공립고 운영

- ◆ 학력책임 교육과정 운영
 - '2+1', '3+1' 수준별 이동 수업
 - 독서·논술 지도 프로그램
 - 수준별 교과 교실제 운영
- ◆ 실력향상을 통한 명문진로 계승
 - 한모3·3·3 프로젝트
 - 한모 A+ 프로그램
 - 100 & 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 대학진학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
 -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 준비 프로그램
 - 논술 및 면접고사 철저 대비
 - 수능 고득점 지도
 - 맞춤형 진학지도
- ◆ 꿈의 요람 기숙사
 - 학력 우수학생 선발 입사(총 150명)
 - 국·수·영 1등급 목표관리제
 - 영어전용 공간(원어민 강사 지도)
 - 자습실 및 전용 컴퓨터실 상시 운영
 - 100% 장학금지급 및 진로멘토링
- ◆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육성
 - 꿈을 가꾸는 창의적 체험활동
 - 품위 있고 경쟁력 있는 민주시민 육성
- ◆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교육력 신장
 - 동문초청 해외대학 탐방
 - 교사사기전작
 -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학년 이충희군 '외할머니'로 최우수상

10월 말 열리는 제3회 29초영화제 본선 진출

3학년 이충희 학생이 지난 8월 9일 「29초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원 안이 이충희군)

이 영화제는 동아제약이 후원하고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공모해 29초 만슬리영화제(월 단위로 개최되는 29초 영화제) 사상 가장 많은 1,562편이 출품됐다.



이충희 군은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생기 넘치다가 떠난 뒤 홀로 남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대비시킨 '외할머니'라는 작품으로 출품하여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군은 최우수상 수상으로 10월 26일 열리는 제3회 29초영화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상금, 고성능 액션캠(동영상 촬영용 카메라), 아이패드 등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김현규(53회) 교장은 "드디어 한모인 중에 유명 감독이 나올 것 같다"며 "이충희 학생이 3학년인 만큼 자기의 소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충희 학생의 작품 내용은 29초영화제 홈페이지(<http://www.29sfilm.com>)에서 볼 수 있다.

대전고등학교 2014학년도 입학전형 학교설명회

- ◆ 일시: 10.17.(목) 19:00
- ◆ 대상: 중3 학부모
- ◆ 장소: 대전고 7층 시청각실

1학년 박주한군 교육감상 금상 대전장애인정보화축제 문서작성 부문서 수상

1학년 박주한 학생이 지난 9월 5일 대전 동구청에서 열린 제2회 대전 장애인정보화축제에서 문서작성-청소년부에서 금상(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사진)

박 군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으나 기초 학습 능력이 좋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며 비장애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전장애인정보화축제는 청소년부와 일반부 각각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제작, 스마트폰검색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 군은 이번 금상 수상으로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정보화축제에 대전지역 청소년부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1학년 정성민, 양충모, 이해중군 동상 대전교육정보원 주최 영어토론대회서 영광

모교가 지난 6월 13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인 이 대회에는 대전시 고등학교의 70%에 달하는 42개 학교에서 1팀씩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3인 1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 모교에서는 교내에서 우승한 1학년 정성민, 양충모, 이해중 군이 참가했으나 준결승전에서 패해 동상을 수상했다. (사진)



임선희 모교 외국어부장은 "금년에 1학년들이 참가해 동상을 수상한 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금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2학년 성적우수자 6명에 170만원씩 전달

대능장학문화재단, 매년 6~8명 선정에 장학금 지급

대능장학문화재단은 지난 7월 23일 박종윤(33회) 이사장 등 재단 이사들과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44회) 등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대능장학문화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방민재(2학년) 등 총 6명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태도가 바르며 성실함을 인정받은 학생들이다. 이들은 1년치 학비(17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앞날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대능인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며 “후배들도 미래의 후배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규 교장은 “이차 감소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직원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재단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문 대고 건설과 자랑스러운 한모인을 길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에서는 매년 6~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연구비도 지원하고 있다.



▲ 박종윤 이사장이 장학금 수여자 6명을 격려하며 후배들도 훗날 기부하는 사람이 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후배들아! 보약먹고 힘내...

박승만(63회) 하이키힘의원 원장, 보약 기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하이키힘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만(63회) 원장이 지난 9월 초 한모생활관생 150여명에게 1인당 1개월 정도 분량의 건강식품을 기증했다. 박 원장이 기부한 건강식품은 한미약품과 협력하여 홍삼을 쥬얼리화하여 개발한 제품(하이키즈 홍삼)으로 1,500만원 상당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에도 모교 생활관 및 야구·농구부 후배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기증했으며, 63회 재경회장을 맡아 동기들과 함께 1,2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건강식품을 기증하면서 “후배들의 건강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후배들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는 박 원장이 기증한 건강식품을 2013학년도 2학기 한모생활관 입사식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건강식품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선배의 진정어린 후배사랑을 느낄 수 있다며 선배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훌륭한 대능인이 되는 것이라고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 지난해 박승만 원장이 장학증서를 주는 장면. 올해는 한모생활관 학생 150명에게 건강식품을 보냈다.

너희는 미래를 위해 무얼하고 있니

백승엽(60회) 충남지방경찰청장, 모교서 ‘꿈과 희망’ 특강

백승엽(60회) 충남지방경찰청장이 9월 12일 모교 시청각실에서 1,2학년 학생회 간부 및 한모생활관 학생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꿈과 희망’ 특강을 실시했다.

백 청장은 후배들에게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 나의 꿈과 행복,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등 후배들이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 했다. 특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의 예를 뽀빠이 이상용(42회) 선배님이 살아온 과정을 설명하며 후배들에게 선배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백 청장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큰 뜻을 세우고 큰 꿈을 꾸어라,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만들어라,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 자신의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라” 등 4가지를 당부하고 “당장 꿈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모교를 방문했던 백 청장은 충남경찰청이 10월에 충남 내포로 이전하면 모교를 자주 못 찾게 돼 아쉬움이 많으며 후배들과 작은 이별을 했다.



▲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큰 꿈과 큰 뜻을 세우고 공부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란히 프로팀 코치 된 쌍둥이 농구 선수

조상현·동현(74회) 고양 오리온스, 울산 모비스 지도자 돼

조상현·조동현(74회) 쌍둥이 동문 이 선수 생활 마무리에 이어 코치 데뷔도 함께 하는 결경사를 맞았다.

5월 27일 조동현 동문이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의 신입 코치로 선임됨으로써, 4월 29일 고양 오리온스

함께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코치를 맡게 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농구를 했다. 서대전초-대전중-모교를 거쳐 1995년 나란히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쌍둥이 형제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형 조상현은 전형적인 슈터였다. 정확한 3점포를 앞세워 국가대표로도 선발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3점 슈터로 인정받았다. 동생 조동현은 대기만성형이었다. 득점력이 뛰어난 형에게 먼

저 스포트라이트를 내렸지만 수비와 허슬플레이 등 팀을 위해 헌신하는 플레이어로 어느 팀을 가든 필요로 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두 형제는 프로에 들어서도 통렐했다. 1999년 서울 SK 나이츠와 인천 SK 빅스에 지명된 후 12시즌을 뛰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그리고 형제는 2012-2013 시즌을 마친 뒤 약속이라든가 한 듯 나란히 은퇴를 선언했고, 또 거짓말처럼 나란히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같은 얼굴로 코트 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형제가 이제는 유니폼 대신 양복을 입고 지도자의 길을 시작했다. 나란히 제2의 인생을 걷게 된 두 동문 형제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심대평(38회) 총동창회 고문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선임



심대평(38회) 총동창회 고문이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이끌면서 그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심 고문의 발탁은 관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민선 충남지사(3선) 등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등 다양한 국정경험과 17·18대 국회의원,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대표 등 풍부한 정치경험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새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병철(57회) 동문 부산지방우정청장 취임



이병철(57회) 동문이 부산지방우정청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제30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상공부 미주통상과,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투자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지난해부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써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을 역임해 왔다.

이 신임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고객이 우체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우체국 365봉사단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인정받는 우체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신임청장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474개 우체국, 149개 우편취급국을 관할하며 우정사업을 경영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기현(58회) 동문 상명대학교 총장 취임



구기현(58회) 동문이 상명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취임했다.

구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상명대 천안캠퍼스 프랑스어문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교무처장, 어문대학장, 부총장, 기획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최근까지 상명수련원장으로 재직했다.

대학에서 일련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구 신임 총장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구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대학 간의 무한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연구역량 강화, 내실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집행, 국제화 강화 그리고 대학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용호(49회) 동문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선임



송용호(49회) 前 충남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의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15년 7월말까지 2년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사립대 구조개혁 및 통·폐합,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부터 충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16대 충남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인재정책분야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공립대학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선태(57회) 동문 광주지방교정청장 취임



김선태(57회) 동문이 제27대 광주지방교정청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8년 교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작업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청송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담당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대인관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업무처리에도 있어서도 기획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직원 상하간 및 기관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엄정한 범죄수사와 수용자의 인권 보장이 동시에 구현되는 교정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이육헌(59회) 동문 우즈베키스탄 대사 부임



이육헌(59회) 동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부임했다.

이 동문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에서 국제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이 신임 대사는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에 입부한 이래 주가봉 2등서기관, 주프랑스 2등서기관, 주벨기에·유럽연합 1등서기관, 외무부 행정법무담당관, 구주 1과장, 주탄자니아 공사참사관 겸 주콩고 대사대리, 주프랑스 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주프랑스 공사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럽국장을 맡아왔다.

**개교 96주년 대전고
다시 뭉치는 대능인**

기고

연회비 10만원 납부자만 259명, 이런 기수 '나와봐'

54회 회장단, 동기들에게 수시로 문자·편지로 한마음 결집



대전 167명, 재경 92명 총 259명. 이 숫자는 대전권 230명, 재경 270명 총 500명의 54회 동기 중 연회비(10만원) 납부자 수로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어느 기수든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치이다. 특히 대전권 수치는 2013년 1월부터 새로 집행부를 맡은 조영환 회장과 송일섭 총무 이하 대전 관할권에 있는 대전, 충청, 영호남 거주 동기들의 합작품이다.

54회 동창회는 지난 5월 25일 모교방문의 날 행사 시 33명 참가로 50대 기수에서 최다참가기상 2등을 하는 등 2013년 들어 다른 기수들의 선망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2005년 졸업 30주년 행사를 전후해 7년간 간사장을 맡았고 2012년에는 부회장을 맡았던 조영환 동문이 2013년에 54회 동창회 회장을 맡아 노력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가 2년 후에 치를 졸업 40주년 행사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자각한 조영환 동문은 회장을 맡자마자 동기들의 행사참여도가 떨어지는 대전동기회의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동기들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 결과 연간 총동창회 분담금에 각종 애경사 문자 및 화환 발송 등 제반 운영비를 고려할 때 현재 50명 정도가 내는 연회비와 찬조금만으로는 동기회 운영이 곤란하다고 느꼈다. 동기회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10주년 단위 기념행사 떠나 소식을 알게 되는 충청권 및 영호남에 산재되어 있는 동기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230명의 동기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대전동기회의의 실상과 재경동기회의의 운영상태 및 안정적인 재무상황 비교, 졸업 40주년 대비 다시 뭉쳐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및 카페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 재원 마련의 방법(예를 들면, 월례모임 시 뜻있는 동기들의 식대 찬조로 모임회비의 적립, 애경사 당사자 동기의 형편에 따른 찬조금 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신임 송일섭 총무와 함께 틈틈이 안부전화를 하고 소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스킨십을 통한 소통과 이해, 협조를 구하고 연회비 또는 찬조금 입금 시 카페에 즉시 올리고 당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문자를

보내 카페 가입 및 방문을 유도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대전지역은 물론이고 제주, 부산, 마산, 포항, 울산, 진주, 광주, 전주, 충주, 천안, 청주, 아프리카 세네갈 등 대전 외 지역에서 50여명 이상의 기꺼운 협조로 대전동기회만 167명의 연회비와 20여명의 찬조금으로 그동안 바닥났던 재원을 무려 2천1백만원 넘게 올린 쾌거를 이룬 것이다.

동기들 스스로도 엄청난 잠재력 발휘와 활성화에 서로 기뻐하고 한층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집행부는 형편이 여의치 못한 동기들까지 포용하여 2년 후의 졸업 40주년 기념행사가 많은 동기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교두보가 되도록 '참여하는 54회 동기회'를 기치로 매진하고 있다.

"넷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다음에 다시 만나세~!"

이 말은 54회 동창회장 조영환이 고교 졸업 40년 가까이 흐르는 세월을 거역할 수 없이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현 시점에, 나이 들수록 지역적인 원근을 떠나 청운의 뜻을 품은 옛 시절을 되새기며 함께 동고동락, 동병상련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기를 희망하는 바람의 되뇌임이다.

54회 동창회장 조영환

42회, 50년 숙성된 고교 친구들, 우리 왕성한 70세

졸업 50주년 행사 200명 참석, 모교에 격려금 전달



42회 동창회는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토) 오전 모교를 방문하여 김현규(53회)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학교 홍보영상물을 본 후 현대식으로 신축된 모교 교사를 둘러보고 본 행사장인 유성 아드리아호텔로 자리를 옮겨 졸업5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사진)

기념식에는 은사님 7분, 윤성렬(44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김현규(53회) 모교교장, 김효경·권오덕 41회 선배 등 내빈 6명, 대전권 동기와 가족 86명, 서울권 동기와 가족 92명, 미국, 캐나다, 태국 동기와 가족 11명 등 총 202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모교에 격려금 200만원, 총동창회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념식 다음날인 5월 12일에는 동기회 임원과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내 고향 둘러보기 행사의 일환으로 부여 백제문화재현단지와 논산 계백장군묘역을 둘러봤으며 5월 13일에서 16일까지는 일부 희망 회원과 외국에서 귀국한 친구 등 16명의 가족이 내나라 여행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전라도 및 경상도를 아우르는 남도여행을 즐겨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괴산 산막이 야유회는 '영원한 동기' 되는 약속

42회 동기 79가족이 지난 8월 23일 자연의 벗이 되어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에서 대전·서울 합동야유회를 가졌다.

합동야유회가 우리에게 더위먹이는 지옥축제로 망쳐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기상예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예보를 했고 그날 새벽날씨는 신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조짐을 보였다.

옥내 행사가 아니고 물처럼 바람처럼 함께 어우러져 움직이는 산막이 옛길 야유회에 마치 주문한 날씨처럼 '작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시원한 바람이 건듯건듯 불어 우리 벗들 가족에 대한 天祐神助를 증명하였다.

대전에서, 서울에서 출발한 우리 동기가족들은 예정대로 오전 11시 산막이 옛길 주차장에 도착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모두 만나 보니 대전 40가족, 서울 39가족이었다.

산막이 옛길 산책을 마치고 괴산 시내 식당 다래정으로 옮겨 자리를 잡았다. 버섯전골과 꺼먹대지볶음은 그야말로 맛이 일품이었다. 넓은 식당을 가득 메운 우리 친구가족들은 못 다한 정담을 나누느라 소란하였다. 분위기는 권커니 잡거니로 더욱 요란하였다. 만남의 의례는 간단히 끝났다. 그리고 우리들의 즐거운 시끌벅적도 막을 내렸다.

오후 3시 대전 친구들은 대전으로, 서울 친구들은 서울로 출발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우리들의 동행은 4시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으로 가는 아주 소중한 길목일 것이다. '우리들 모두의 행복을 빕니다' 라고 끝말을 붙인다.

"42회 만세!"

글 : 최낙영(42회)

등산모임 '산사이' 900회 산행 돌파

1995년 5월 발족한 42회 동기 등산모임 '산사이'가 지난 6월 17일 산행 900회를 돌파했다. '산사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6월 29~30일 요즘 TV프로를 흉내 내어 1박 2일 일정으로 24명의 회원과 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생태습지(갈대밭)와 인근에서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관망했다. '산사이'는 고흥군 녹동에서 1박한 후 한센병(문동병) 수용시설이 있던 국립소록도병원 지역을 둘러보고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지난해 4월 개통한 2층 구조의 거금대교(연장 2,028m)의 1층 자전거도를 통해 도보로 건너 해발 592m의 적대봉을 무사히 등산하고 돌아왔다.

'산사이'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며 꾸준히 등산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강문 부부 특선, 입선 동반 입상

재경동기 최강 박강문 친구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문화원이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강남미술대전에 부인과 함께 서양화 유화작품을 출품하여 친구는 특선, 부인은 입선으로 입상하여 42회 동기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박강문 동기 내외는 작년부터 서울예술의전당 미술아카데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며 권기동 화백의 지도를 받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친구는 특선, 부인은 입선의 영예를 안아 앞으로 부부화가 탄생을 기대해도 좋을 畫才를 함께 보여주었다.

박강문 동기는 "뒤늦은 취미생활로 시작한 미술 공부에 이제 내 삶을 잇는 버팀목이 되었다"며 "이번 입상을 계기로 그림 공부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30년 공직 접고 귀향 자서전 출판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1급 관리관 국가정보대학원장으로 마치고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고향으로 돌아가 종종 일을 보며 조용한 귀향생활을 즐기고 있는 정국희 동기가 지난 4월 교회 기념 자서전을 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정국희 동기는 인사말에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 자서전의 형식으로 삶의 자취를 남긴다. 또, 퇴직한 후 열심히 한 종종 일을 후손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 자서전을 썼다"고 술회하고 있다.

자서전의 표제는 <어~ 하다 보니>인데 표지에는 표제와 어울리고 우리 동기들이 아는 대로 유순하고 너그러우며 참 좋은 정국희 친구의 웃는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실려 있다.

대전고 출신은 다르다 봉사하는 대덕대 한모 동아리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희는 대덕대학교 '2030한모인'입니다. 대덕대학교 2030한모인은 대전고등학교 졸업 후 대덕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인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저희 2030한모인의 주 목적은 봉사활동 및 여러 동문 선배님들과의 친목도모입니다. 고등학교



▲ 자주 만나야 동문애도 살아납니다. 소주 잔을 기울이며...

졸업 후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문이라 하더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학과 생활로 인해 지나가다 마주치더라도 어색해 하며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어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대전고 출신은 다

르다'는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동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봉사활동과 총동창회 활동을 하며 동문 선배님들과도 같은 유대감 및 동질감을 형성하여

보다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는 결속만 단계이지만 점차 다른 대학교에도 저희 같은 동아리를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덕대학교 총학생회장, 2030한모인 회장 이경도(86회)

65회, 이번 야유회는 졸업 30주년 준비하는 디딤돌

65회 동창회는 11월 17일 일요일 경기도 영흥도에서 야유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 먹고살기 바빠 주변을 돌아 볼 여유가 없던 동기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고 몇 년 후에 있을 졸업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65회가 단결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준비위원은 김진억(5반, 회장), 김기영(7반, 재경회장), 이강진(11반, 총무), 전동배(4반, 총무), 류제항(10반, 재경총무), 정윤선(11반, 재경총무)이 맡았으며 성공적인 야유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야유회는 영흥도 발전소 견학과 함께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운영과 증설 등 전력문화의 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발전소 견학 후 축구 및 주변관광을 하고 해수탕에서 목욕하며 어릴 적 개천에서 먹 감던 기분을 느껴보고 주변 식당에서 회포를 풀며 고교시절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야유회를 계기로 그동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동기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갖지 않았던 65회가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전체가 만나는 행사를 갖는 것을 전통으로 삼으려 한다.

야유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기는 총무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하면 되며 '밴드'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도 된다. 야유회의 자세한 시간계획과 회비 등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65회 동창회장 김진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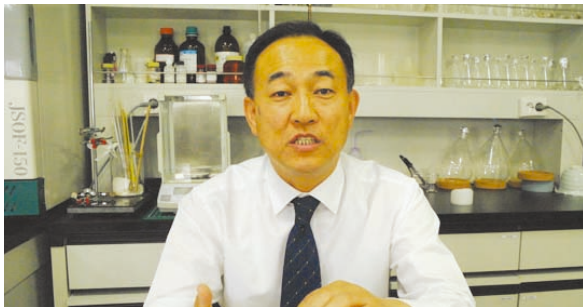
동문기업 - (주)아이씨푸드

“외식, 단체급식 우리가 책임집니다” 국민 건강 위해 천연조미료·소금 개발한 국내 유일 기업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은 지난해부터 MSG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에 ‘착한식당’이라는 인증패를 달아주며 MSG에 대한 유해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감칠맛을 내는 화학조미료인 MSG(Mono Sodium Glutamate, L-글루탐산나트륨)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며 섭취를 꺼리는 첨가물로 전락했다. MSG의 유해여부가 이슈화되자 천연조미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MSG를 대체하는 천연조미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박균익(56회) 동문의 (주)아이씨푸드이다.

이 회사는 충남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14년 동안 농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신라면 스프를 개발한 조미료전문가인 박 동문이 1999년에 창업했다. 2000년에는 중국 청도에 합작공장을, 2005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지사를 설립해 라면스프 원료개발 및 유통 뿐 아니라 이스트, 시즈닝 등 식품소재 수출입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와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에서는 천연조미료와 스프를, 중국에서는 MSG·소금·설탕 대체제와 스프, 소스 및 스낵을 위한 각종 시즈닝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를 세상에 알린 건 뜻밖에도 대기업 라면회사였다. MSG는 그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라면스프에 MSG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비자들의 압력이 라면회사에 가해졌다. 2007년도의 일이다. 이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아이씨푸드의 박 동문이다. 박 동문은 같은 맛을 내면서도 화학조미료의 문제점을 없앤 No-MSG 조미료를 개발해 라면업체에 공급했다. 한때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라면 등 내노라하는 라면회사들 스프의 No-MSG 원료는 그가 도맡아 공급하면서 아이씨푸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다양한 종류의 MSG 대체제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아이씨푸드는 이제는 천연조미료 ‘효모로’를 개발하여 또 다시 조미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박균익 대표는 지속적인 천연조미료 개발로 국민 먹거리 불안을 없애는 국내 최고 기업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효모로(酵母路)’는 ‘발효로 얻어지는 감칠맛의 길’이란 뜻으로 효모추출물에 각종 야채추출물(마늘, 다시마, 대파, 배추, 무, 양파, 표고버섯, 후추, 생강 등)을 더해 만든 천연조미료이다. 기본 육수는 물론, 찌개, 전골, 탕, 조림, 나물무침 등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조미료와 다르게 느끼함이 없고 맛이 깔끔하며 감칠맛을 입안 가득 채우면서 요리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한식은 물론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린다.

대표이사는 농심에서 14년 근무한 조미료 전문가
NO-MSG 만들어 국내 우수 라면업체 납품
천연조미료 ‘효모로’ 개발로 新 조미료시장 주도
곧 출시될 프리미엄급 천연소금은 이 업체의 ‘금맥’

그런데 MSG를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요리가 중국요리이다. 그래서 중국음식점에서 MSG 대신 ‘효모로’를 사용하여 요리의 맛을 테스트해 본 결과 MSG를 썼을 때보다 요리의 맛은 더 살아나면서 느끼하지 않고 깔끔함과 감칠맛이 더 좋았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MSG 대신 ‘효모로’를 사용하는 중국음식점이 계속 늘고 있다.

아이씨푸드는 이렇듯 직접 개개 음식점을 상대로 영

업을 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대형 음식점 뿐 아니라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체에서도 납품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대기업처럼 전국유통망이 없다 보니 매출이 팍팍 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아이씨푸드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은 천연조미료 ‘효모로’ 뿐이 아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5,280mg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2,000mg의 2.5배가 넘는 양이다. 이에 직면해서 근래 정부차원에서 소금을 적게 먹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씨푸드는 이미 같은 정도의 짠맛을 내면서도 나트륨 함량이 일반소금보다 40%나 적은 ‘로나솔트’를 개발하여 저염식 음식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곧 ‘효모로 로나솔트’라는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화학적합성분 무첨가물 기본베이스로 천연 원료소재인 효모추출물과 신안산 천연염을 주원료로 하여 나트륨 30%를 절감한 천연소금으로 맛이 짜지 않고 효모의 감칠맛이 더해진 프리미엄급 천연소금이다.

‘효모로 로나솔트’는 기존 소금대체료의 큰 난제였던 염미감소, 이미, 이취발생, 고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인데 단순히 나트륨을 칼륨으로 대체하는 기존의 제품경향에서 탈피해 인체의 생리작용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 저나트륨 소금대체제이다.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당이나 단체급식업체가 저나트륨 운동에 동참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먹는 즐거움과 안전성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외식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야 성공하는 외식업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에도 천연조미료와 저나트륨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음식의 맛과 풍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박 동문의 말이다.

문의: 박균익(56회) 대표이사 010-5436-5738

대표전화 044-864-6264

알면 좋은 총동창회 홈페이지 동문 찾기 부터 구인 구직까지 한눈에 가득

- ▶ 먼저 회원가입을 하세요. E-Mail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입이 잘 안되면 총동창회로 문의하세요. ☎042)257-0005
- ▶ 동문찾기: 동문을 편하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검색하기: 이름(한 글자도 검색가능), 기수, 모임별, 직장명, 직장주소, 자택주소(시, 구, 동 이름 2글자) 휴대 폰(4자리 이상)
- ▶ 개인정보수정: 총동창회와 재경총동창회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있으니 개인정보가 틀린 사람은 직접 본인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수정은 기별총무가 파악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수와 총동창회 정보 동시 수정 가능하므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총동창회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입니다)
 -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한 동문을 총무가 기수 검색해서 수정일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의 각종 공지사항과 동문동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모든 자료가 정리되고 있으니 찾아보기가 좋습니다.
 - 카톡이나 밴드보다 지난 자료를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동창회비 납부자, 후원금, 찬조금, 찬조물품 후원자도 조회 가능합니다.
 - 총동창회 임원, 기별 임원, 각종 모임 임원도 조회 가능합니다.
- ▶ 애경사도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 처음 가입비만 내면 기수·지역·직능 홈페이지를 총동창회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 ★ 인천, 안양, 구미지역 홈페이지, 47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총동창회 홈페이지와 상호 연결됩니다.
- ▶ 동문구인구직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동창회도 활성화되고, 정보와 자료도 최신 것으로 항상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 ♣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 홈페이지 많이 자주 활용하세요~.

54회 김용구

52·62·72회 졸업 기념 행사 안내

- ◆ 52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5시
 - 장소: 유성리베라호텔
 - 참가문의: 대전 박영선 010-5452-1265
재경 이원건 010-3723-3240
 <52회 동창회 회장 박준태, 재경회장 최경순>
- ◆ 62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 일시: 11월 9일(토) 저녁 6시
 - 장소: 선사인호텔
 - 참가문의: 대전 이상진 010-8893-3816
재경 김선택 010-5212-6703
 <62회 동창회 회장 김창수, 재경회장 이동인>
- ◆ 72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 일시: 11월 16일(토) 오후 4시
 - 장소: 모교 강당
 - 참가문의: 대전 이인복 010-9908-5944
재경 양우영 010-9975-2565
 <72회 동창회 회장 조명휘, 재경회장 양우영>

山, 川, 田 어우러진 대전고 터 그곳에서 대능인의 기상을 생각한다



長白의 정기 모던 鷄龍의 돌레, 大田高의 터

우리들의 모교 대전고의 터, 그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장백의 정기 모던 계룡의 돌레산 보문산이 동북향의 테미고개 능선을 끝으로 낮은 구릉을 이루며 드넓은 한밭벌의 초입을 이루는 곳, 20세기 초기 1917년 초 그 곳에 우리들의 모교 대전고가 터를 잡았다.

1917년 4월 1일 관립 경성중학교 대전분교로 개교, 이듬해 4월 1일 대전중학교로 설립인가(당시 5년제, 중·고 통합학제)되어 이제 몇 년 후면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 역사와 함께 유유히 흘러오는 大稜人의 脈의 고향 모태이기도 하다. 옛 校誌의 추억을 더듬어보면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전고 아래 대흥4가 쪽으로는 논과 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전고의 터를 알려면 먼저 대흥동의 유래를 고찰해 봐야 할 것 같다.

大興洞

대흥동은 한자의미대로 대전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자연부락인 부처대이, 동산마루, 테미를 병합하여 대흥동이라 하였다 한다. 조선초기에는 공주군 산내면의 지역이었고, 조선말기 高宗32년(1895)에는 회덕군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흥리로 大田郡에 편입, 그 후 1931년 대전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왜식 명칭에 따라 大興町이 되었으며, 1949년 왜식 동명 개칭에 따라 大興洞이 되었다. 현재는 신도시개발 여파로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大稜人들의 靑雲의 꿈 향수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전고의 터 부처대이 마을

대흥동과 대사동이 경계를 나누는 분기점에서 대흥동 쪽, 즉 우리들의 모교 터 본관 뒤쪽, 대전중학교 쪽이 이 부처대이 마을이었다고 한다. 마을입구에 돌부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전설로 전해온다. 삼국시대 이후 전래적으로 불교문화를 숭상해 온 우리민족, 부처님을 닮아서 그런지 사람들도 한 성품이 온후하고 마음이 넓다. 바로 우리 大高人들의 정서다.

대전고의 동편 동산마루

현 대흥교 부근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곳,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자리에 있던 마을이다. 마을 위쪽으로 작은 동산이 있어 동산마루로 전해왔는데, 맑은 대전천이 흘러 정말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이었다고 한다.

역사의 고장 테미

지금의 성모초등학교 자리에는 山城이 있어서 이 산성을 테미산성으로 불렀다고 한다. 主城인 보문산성(백제시대 군사 목적)을 방어하는 제2선의 방어기능을 수행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래 성모병원 뒤편으로 큰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테미이다. 테를 두른 산성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자연적으로 그리 이름 붙여진 것이다. 테미마을에는 방죽을 끼고 있어 마을 뒤편으로 뒫 방죽골(테미시장부근 추정)이라 불렀다 한다.

대전고의 남쪽 보문5가의 한적골

현 대서동의 원 마을이 한적골이다. 옛날에 큰 절이 있었으므로 한절골(큰 절이 있는 고을) 즉 오늘날의 大寺洞이 되었다. 한적골은 한절골, 한작골, 파곡(芭谷), 한계(寒溪)라고도 불렀다 한다. 꽃이 많이 피는 계곡이라 해서 파곡(芭谷)이라 부르고 겨울에 계곡이 운치가 있다고 해서 한계(寒溪)라고도 부르는 대전의 원 마을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보문5가 아래로 보문산의 계곡물이 흐르는데 옛 사람들이 계절 따라 풍류를 즐기던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지형과 유래로 볼 때, 대전고의 터는 장백의 정기를 이어 받은 계룡의 돌레산 보문산이 맑은 대전천과 함께 드넓은 한밭벌을 거느리는 풍요의 고장으로 인물도 많이 배출하는 길지임이 틀림없다. 1910년대 일제가 근대 도시계획과 함께 마을을 가로지르며 신작로를 내고 자신들 자녀들의 교육기관으로 관립 중학교를 설립 개교해 그 맥을 유유히 이어오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난번 어느 일간 신문과 총동창회발행 大稜紙를 보니 정부1~3급 고위공무원(중앙부처 국장급이상)이 총 41명으로 전국 1800여개 고교 중 4위에 랭크 돼 있고, 국내 1,000대 상장기업 CEO 배출이 9위에 올라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물론 고위관료 숫자나 기업 CEO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명예심과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우리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한 배움의 전당 대전고, 그 터의 옛 풍경을 그려보면 보문산과 대전천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광 속에, 부처대이와 동산마루 테미 한적골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넓은 한밭벌을 바라보며 씨 뿌리고 걷으며, 풍요함 속에서 서로 나누며 때론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두레놀이 해가며 이웃간 마을간 화합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던 곳이다. 그런 아름다운 조상들의 열이 서려 있는 곳, 그곳에 우리 대전고가 터를 잡고 大稜의 脈을 이어오며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있으니 모교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대능인 모두의 영광이기도 하다.

역사와 전통, 다가오는 개교100주년, 외관은 변했어도 그 뿌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모교 대전고, 그리고 그곳 그 터.

오늘을 살아가는 大稜人들의 기상과 삶을 생각해 본다.

김종남(46회 총무)

*자료출처 - 한밭의 열(1991. 1. 대전작할시 발행)

쌤, 그리고 만남 또 모루너머로 바라봄



쌤

속이 아려움으로부터 졸음에서 깬다. 이제 야 고희(古稀)를 넘어선 어머님께서 “맛있어!”하시며 그 밤에 시골동네 구멍가게에서 사다놓으시던 건빵이며 우유의 의미를 안다. 오래 사신 이의 가벼운 주머니를 원이 넘어선 막 내 아이가 더욱 가벼이 하여 기쁜 마음으로 먹어가며 밤늦도록 작업하던 추억을 떠올린다.

만남 1

지난해인가 8월 어느 날 평소 굳이 지나지 않아도 될 뒷길을 터덜터덜 걷다가 봄날 언젠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던 이가 생각나 그리로 스민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그의 아내가 관리하는 갤러리가 이달 말경 비어 한가함으로 하여 작업장과 집안 밖 여기 저기 버려지듯 흩어져있는 삶의 부스러기들을 가져다 놓기로 한다. 뜻밖의 일이다.

만남 2

그 후 며칠 뒤이던가, 시내에 불일이 있어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저만치 앞서 초치원 쪽을 향하는 2차선 옛날 1번 국도변 길을 배낭 하나 달랑 매고 산모퉁이를 돌아 걷던 젊은이가 손을 흔들기에 차를 세운다. 그는 조금은 절뚝이며 기쁨으로 달려와 가는데 까지만 이라도 태워달라기에 문 열어 타라 한다. 그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는 무전여행(無錢旅行)중인 요즘 보기 드문 학생이다. 더욱이 우연히도 내가 강의 나가는 학교를 휴학하고 입영 날짜를 받아놓은 학생이란다. 조금은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함께 작업장으로 가기로 한다. 작업장을 둘러본 후 식사를 하며 이야기 하던 중 며칠간 전공은 다르나 나의 작업을 도우며 함께 지내기로 한다. -하승훈-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쁜 우연한 만남이 아닐 수 없다. 9월 2일인가 3일인가 입대라고 했는데 지금쯤은 어디선가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겠지.... 그 며칠사이에 스스로 쫓대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며 첼로 만들어 무겁지만 소중히 배낭에 넣어 가져갔다. 나는 젊은 친구의 삶이 그 무게만큼 가벼워지길 기대하며 아쉬운 이별의 뒷모습을 한참도록 바라본다. 그리고 난 그 덕에 새로운 작품을 상상하게 되었다.

모루너머로 바라봄

전혀 낯선 세월을 잊자. 어차피 험클어진 추억들을 차라리 잊자. 오히려 난 언젠가부터 고맙게도 내 삶이 지워진 만큼 젊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공연히 그때를 도새길 필요가 있는지를 되묻곤 한다. 내가, 전(前)의 내가 아니면 어떤가. 기왕이면 멋모르고 날뛰던 그때가, 가방에 단소 질러 매고 종일토록 걸어도 온 세상이 마음에 차지 않아 그 어떤 곳에 있어도 ‘나’ 뿐이었던 그 시절이 그리울 따름이다. 그래서인가 잊었지만 언뜻 언뜻 마구 솟아나는 기억들이 모루너머 타오르는 화덕의 불꽃 속에서 상상력을 안고 뜨거운 산물로 다가서 생태적인 ‘몸’이 되어버린다. 그래선지 나의 작업은 몸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일은 무위적(無爲的) 작업 반복을 통해 물질 자체의 상상력(물질적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것에서 시작되어 나의 형상화 욕구와 합치되는데 까지 전일적(全一的)으로 진행된다. 이 밤 코끝을 스치는 모기향 앞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몸은 흐느적댄다. 저 망각의 그트머리에 다가섰다가 다시 돌아온 내가 세상살이에 내몰려 있어서 오히려 평안했던 혹은 방심(放心)했던 나 자신을 돌아본다. 살다보면 어찌 그리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함께 다가오는 지... 세월을 건너편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모루와 바이스에 낀 거미줄은 게으름인가 행복인가. 비틀거리는 내가 안길 곳은 어디인가. 더러움이 온전히 없음을 핑계로 허물어진 나 자신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비례(非禮)는 불비(不備) 아닌가. 중세적 노동이, 밀레니엄 시대의 쓸데없는 담론보다 투덜대며 정 때기를 기다리며 내리치는 망치질이 나에게 일상이다. 이제서야 종일 걸어도 어머니 품안에 있음을 깨달은 난 늦은 밤 망치질 소리에 잠 못 드시고 타주신 커피향이 그립다.

철공예작가 유재중(59회)

* 유재중의 철 단조이야기 블로그
<http://blog.naver.com/momsseum>

기 별 소 식

<35회>

- ◆ 35회 자문위원 간담회
 - 일시 : 2013년 9월 26일
 - 장소 : 35회동창회 사무실
 - 안건 : 동창회 운영방안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이종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5 금강엑셀루타워A 107-2204
- ◆ 애사
 - 김귀선 : 본인상 6.16
 - 남수현 : 본인상 6.21
 - 이해권 : 본인상 8.6
 - 정훈석 : 본인상 8.8
 - 이창원 : 모친상 8.9

<36회>

- ◆ 하반기 임원회
 - 일시 : 2013년 10월 31일(목) 12:00
 - 장소 : 36동창회사무실(충청회관 405호)
- ◆ 송년회 및 총회
 - 일시 : 2013년 12월 19일(목) 12:00
 - 장소 : 일산본가대흥동 천주교회 방면) ☎ 256-4100
- ◆ 재경36회 운영위원회
 - 일시 : 2013년 10월 25일(금) 13:00
 - 장소 : 서초갈비명가
- ◆ 재경36회 송년회 및 총회
 - 일시 : 2013년 12월 13일(금)
 - 장소 : 산돌해(양재동)
- ◆ 애사
 - 설길용 : 본인상 2.12
 - 김용복 : 모친상 4.13
 - 이문재 : 본인상 5.12
 - 고영수 : 본인상 5.30
 - 광인하 : 모친상 5.31
 - 유수준 : 모친상 7.7
- ◆ 2012년(과년)연회비 납부바랍니다.
 - 연회비 : 20,000원
 - 입금계좌 : 국민 451601-04-207181, 유일준

<38회>

- ◆ 38회 바둑대회
 - 일시 : 2013년 6월 6일 10:00~16:00
 - 장소 : 동창회 사무실
 - 참가인원 : 이용만 회장 외 25명
 - 성적 : A조 ①강진무 ②김수동 ③김봉수 B조 ①박상록 ②노규래 ③이강룡
- ◆ 축하
 - 심대평 : 세종미래비전연구소 초대 원장 취임 건양대 석좌교수 임용 대통령 자문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 위촉
- ◆ 애경사
 - 이윤관 : 자훈 6.15
 - 김용원 : 여훈 6.22
 - 이종현 : 본인상 9.1
 - 최인수 : 모친상 9.8

<41회>

- ◆ 2013년도 41회 재경동문 초청야유회
 - 일시 : 2013년 10월 7일
 - 장소 : 보문산
 - 내용 : 100여 동문 부부 참석 야유회 후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송승현 동문 운영장터가든에서 오찬
- ◆ 회원동정
 - 박효근 (前옥천문화원장) : 9월 2일 연변에서 열린 제17회 연변지용문학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함. 박동문은 오랜동안 옥천문화원장을 맡으면서 '항수'로 유명한 옥천출신 대사인 정지용을 세상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음.
 - 김용재 (대전문인총연합회장) : 9월 9일 대전기독연합봉사회관에서 100여 문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문학한마당잔치를 개최. 이날 행사는 대전문학시대 가을호(34호) 출판기념과 '대전 각급 학교교가'에 나타난 대전정신을 주제로 한 2013 문학심포지엄도 함께 열림
 - 권오덕(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

위원장) : 10월 7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아 태평양 공연예술센터연합회 총회에 참석. 10월 9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총회의 주제는 '아트센터의 미래를 논하다'였다

- ◆ 애사
 - 송승현 : 모친상 8.16

<44회>

- ◆ 제34주년 '사은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 일시 : 2013년 5월 12일(일) 12:00
 - 장소 : 국회의장 공관(서울 용산구 한남동)
 - 참가인원 : 125명 (은사님 10명, 동문 115명)



·참석 은사님 : 김영덕, 김용구, 성선제, 이광중, 이준희, 임만기, 임선재, 조남호, 황금연, 김영덕선생님 사모님

- ◆ 애경사
 - 서병성 : 본인상 4.13
 - 김승식 : 본인상 4.30
 - 윤영규 : 본인상 5.14
 - 김기수 : 장인상 6.3
 - 박원규 : 자훈 6.8
 - 이병호 : 자훈 6.8
 - 표종환 : 여훈 6.15
 - 유한근 : 자훈 6.16
 - 이남복 : 여훈 6.29
 - 이주태 : 자훈 7.13
 - 강남수 : 모친상 7.28
 - 이상순 : 여훈 8.17
 - 윤덕한 : 자훈 8.24
 - 김세진 : 자훈 8.31
 - 박관순 : 자훈 9.7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김원순 : 010-2430-4096
 - 이용주 : 010-5437-2578
 - 강남수 : 010-4013-3518
 - 박상복 : 충남 계룡 염사면 염사리 두산신성A 104-804
 - 박우현 : 대전 유성 상대동 한라비발디아 303-702
 - 신연서 : 충남 논산 벌곡면 대둔로 931
 - 오세영 : 대전 유성 원신흥동 신안인스빌리베라A 806-1403
 - 홍명식 : 대전 서구 용문동 서우A 102-1011

<45회>

- ◆ 정년퇴임
 - 황병두 : 총대 의대교수 8.31
- ◆ 개업
 - 권승순 : 어시장 삼대(충남 천안시) ☎ 041-555-8922
- ◆ 45산악회 정기총회
 - 일시 : 2013년 8월 31일
 - 회장 문환연, 부회장 정성용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심재진 : 작대전 중구 당지로 52(산성동, 건일약국, ☎ 042-587-8122 자)대전 동구 산내로 1330, 111-601(남대전e편한세상)
- ◆ 애경사
 - 오영환 : 자훈 6.16
 - 윤귀중 : 장인상 7.9

<46회>

- ◆ 회원동정
 - 김중성 : 한국웨딩산업 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취임 5.21

대전 중구 선화동 5-1 소청1번가빌딩 2층☎ 223-8305)
· 강대영 : 정년퇴직(충남대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 8.30,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역임
· 강준구 : 정년퇴직(가톨릭의과대학 대전 성모병원 마취과 교수) 8.30

- ◆ 애경사
 - 최재홍 : 모친상 6.16
 - 황성하 : 장인상 6.25
 - 송지호 : 자훈 6.29
 - 정희상 : 자훈 7.6
 - 김한경 : 장인상 7.7
 - 이지원 : 모친상 7.29
 - 송성호 : 모친상 8.1
 - 민경희 : 여훈 8.24

<47회>

- ◆ 대전·서울 합동체육(등산)대회
 - 일시 : 2013년 10월 9일(수)
 - 장소 : 계룡산(천장탐방지원센터→남매탑→동학사)
- ◆ 축하
 - 박웅범 : 대전중학교 총동창회장 취임 1.1
 - 오영권 : 법무법인 유&아이 대표변호사 취임(대전) 6.1
 - 민형기 :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취임(서울) 6.10
- ◆ 애경사
 - 이원희 : 자훈 7.6
 - 신희일 : 자훈 7.14
 - 오금복 : 본인상 7.22
 - 신방현 : 여훈 9.7
 - 최병화 : 자훈 9.8
 - 고종선 : 여훈 9.8
 - 민성래 : 모친상 9.10

<48회>

- ◆ 2013대전고48 화합한마당행사 개최
 - 일시 : 2013년 6월 15일~16일(1박2일)
 - 참가인원 : 150명
 - 행사장소 : 공주 산림박물관 및 마곡사 일원
- ◆ 48회 역대회장(2000년 이후) 초청간담회
 - 일시 : 2013년 8월 5일
 - 참가인원 : 10명
- ◆ 신현일 재경총동창회장 초청 간담회
 - 일시 : 2013년 8월 28일
 - 장소 : 정일품(대전)
 - 참가인원 : 50명
- ◆ 회원동정
 - 송영무 (前해군참모총장) :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5.1
 - 유병수 : 건아식품, 건아건강원 창업 5.8
 - 이기재 : 나iki대리점 오픈(대전 은행동) 7.20
 - 임의순 : 홍성유일노인요양원 개원 6.21

<49회>

- ◆ 행사
 - 재경동기회 주최 박병석 국회부의장 초청 방문 성료 7.22
 - 대전지역 야유회(운주계곡) 8.11
- ◆ 회원동정
 - 송용호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선임 8.1
 - 나성호 : 국가원자력안전위원 임명 8.5
 - 이수양, 오명성, 전찬두 : 정년퇴임 훈장 수훈 8.31
- ◆ 애경사
 - 임재호 : 모친상 6.10
 - 구자봉 : 본인상 6.17
 - 박일훈 : 여훈 6.28

- 이덕주 : 여훈 7.7
- 김진태 : 여훈 7.7
- 김종희 : 모친상 7.12
- 고대룡 : 여훈 7.14
- 이재원 : 자훈 7.27
- 강이구 : 모친상 8.10
- 홍광희 : 모친상 8.13
- 권창중 : 장모상 8.21
- 임하영 : 자훈 9.6
- 전병한 : 자훈 9.14
- 광상호 : 자훈 10.12

<51회>

51회 동기회는 지난 8월 1일 심장이식수술을 한 표찬영 동기의 치료비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모금을 시작하여 150여 동기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1주일 만에 3,384만원을 모아 모금액을 표 동기에게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함.

- ◆ 회원동정
 - 송준호 : 삼성송암내과 이전 개원 6.3
 - 정덕진 : 신세계모터스 자동차 정비소 개업

- ◆ 애경사
 - 김철규 : 장모상 4.22
 - 이희철 : 자훈 5.4
 - 김학수 : 장모상 5.7
 - 구본황 : 장인상 5.15
 - 조수남 : 여훈 5.17
 - 정백기 : 장인상 6.2
 - 김영호 : 모친상 6.3
 - 채규현 : 자훈 6.15
 - 손중기 : 자훈 6.22
 - 우제량 : 장인상 7.22
 - 고선근 : 부인상 8.11
 - 유범열 : 장모상 8.19
 - 오연군 : 부친상 8.21
 - 양계석 : 여훈 8.25
 - 민병선 : 모친상 8.29
 - 최병갑 : 장인상 9.6
 - 신영철 : 자훈 9.7
 - 국중근 : 자훈 9.7
 - 강희달 : 자훈 9.14
 - 김순식 : 여훈 9.28
 - 강현택 : 자훈 9.28
 - 최기화 : 여훈 10.5
 - 김선관 : 여훈 10.9
 - 정재건 : 자훈 10.26

<53회>

- ◆ 행사
 - 서울·대전 단합대회
 - 일시 : 2013년 5월 12일(일)
 - 장소 : 여주 강천보 일원
 - 참가인원 : 부부동반 100여명
 - 대전동기 하계야유회
 - 일시 : 2013년 7월 21일(일)
 - 장소 : 금산 제원남촌가든'
 - 참가인원 : 40여명
- ◆ 회원동정
 - 이상덕 : (주)진흥주물 대표, 군산 본사 공장 준공식 5.23
 - 권선택 (전 국회의원) : 자신이 고문을 맡고 있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대전경제투어 '시민 속으로'를 시작하며 3개월간의 민생 대장정에 나섰다. 또한 3차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8.7
- ◆ 축하
 - 임 철 : 대전시교육청 감사관 7.1
 - 변상기 : 서청주우체국장 8.23
 - 한만희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9.1
 - 나태순 : 대전둔산고교 교장 9.1
 - 윤제선 :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 노종진 : 대전교육연구실 교육연구사
 - 김성태 : 청양 정산고등학교 교감
- ◆ 애경사
 - 김용만 : 부친상 4.26
 - 이홍우 : 모친상 4.28
 - 손승찬 : 자훈 5.17
 - 유상근 : 장인상 5.18
 - 김영태 : 부친상 5.18
 - 안의현 : 모친상 5.26

- 배국렬 : 장모상 5.26
- 김철수 : 자훈 6.1
- 우제환 : 여훈 6.2
- 김기호 : 자훈 6.2
- 이한준 : 자훈 6.8
- 정 락 : 여훈 6.15
- 이동훈 : 여훈 6.15
- 박병익 : 자훈 6.29
- 박노호 : 모친상 7.13
- 성원규 : 장모상 7.16
- 오환수 : 장모상 7.25
- 박용규 : 장모상 8.2
- 현상대 : 부친상 8.6
- 김성동 : 여훈 8.23
- 김응중 : 자훈 8.31
- 윤중섭 : 자훈 9.7
- 노의선 : 여훈 9.7
- 성은모 : 자훈 9.28
- 김정호 : 자훈 10.9

<54회> 88

◆ 회원동정

- 조영환 : 한국감정원 퇴직, 통일감정 대전지사 근무
- 오재권 : 광운대 경영학부 출강
- 이동규 : 천안호서대 경영학과 출강
- 정종옥 : 광운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 박광주 : jbc 보도전문위원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우형식 : 우송대 석좌교수
- 전옥현 : 한림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국제정세 및 안보전문가로 활동
- 송인동 : 오미자 농원 http://blog.naver.com/mrs_omija
- 김선주 : 서울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 최진복 : 서울 신서고 교장
- 장우석 : 서울 불암고 교장
- 정현필 : 대한민국 백강(100인의 강사)포럼 창립회원
- 여한구 : 영화투자사 캐피탈원 대표, 영화 <7번방의 선물> <건축학개론> <숨바꼭질> 등
- 신용호 : 금융연수원 부원장 선임
- 강덕기 : 한밭고 교감

◆ 애경사

- 오재권 : 모친상 4.25
- 최완성 : 부친상 5.13
- 김성호 : 장인상 5.18
- 정인철 : 모친상 5.23
- 강태영 : 자훈 5.26
- 장우석 : 여훈 6.1
- 정재익 : 자훈 6.1
- 박종덕 : 여훈 6.16
- 김정호 : 모친상 6.18
- 나성찬 : 장모상 6.21
- 강인빈 : 부친상 6.23
- 정진오 : 부친상 6.26
- 김연권 : 장모상 7.2
- 김용환 : 모친상 7.8
- 김세중 : 모친상 8.3
- 송남영 : 장모상 8.9
- 정병욱 : 여훈 8.10
- 육상훈 : 장인상 8.14
- 이영효 : 자훈 8.31
- 김동섭 : 여훈 9.7
- 김추성 : 자훈 9.7
- 윤용진 : 장인상 9.10
- 강인빈 : 여훈 9.28
- 김병운 : 자훈 9.28

<55회> 88

- ◆ 2013년도 55회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2013년 9월 28일 10:30~17:00
- 장소 : 대전고등학교 제2운동장
- 참가인원 : 55회 동기 및 가족 80여명
- 내용 : 축구경기 및 가족 명랑운동회

<56회> 88

- ◆ 2013년도 56가족등반대회
- 일시 : 2013년 6월 16일
- 장소 : 식당산
- 참가인원 : 56회 동기 및 가족 140여명
- 내용 : 대전과 재경이 매년 번갈아 가며 등반대회 개최 올해는 대전에서 주관함.



◆ 회원동정

- 김한성 : 서머텍코리아 대표이사 취임 4.29
- 김기용 : 의정부경찰서장 부임 4.29
- 이정순 : 코트라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운영팀장 발령 6.3
- 전양근 : 대한병원협회 홍보실장 발령 6.3
- 유진근 : KET(산업연구원) 부원장 6.13
- 남한일 : 수협 의정부지점장 발령 7.22
- 이성희(12반) : 하나은행 서초남지점장 이동 7.30

◆ 애경사

- 장동철 : 여훈 4.20
- 김현무 : 자훈 4.28
- 이병일 : 본인상 4.30
- 정필경 : 자훈 5.4
- 이경희 : 여훈 5.5
- 김용욱 : 모친상 5.9
- 고헌진 : 여훈 5.11
- 이종구 : 부친상 5.18
- 양인규 : 여훈 5.25
- 주창용 : 부친상 5.27
- 손 윤 : 부친상 5.30
- 이은석 : 본인상 6.17
- 전양근 : 장모상 7.8
- 김남수 : 장인상 7.9
- 박상철 : 부친상 7.17
- 고성환 : 장모상 8.7
- 민장기 : 장인상 8.8
- 이재훈 : 장모상 8.9
- 남한일 : 장인상 8.23
- 염규영 : 여훈 8.24
- 한운우 : 여훈 8.31
- 조동인 : 장인상 9.6
- 김영완 : 부친상 9.6
- 장완호 : 여훈 9.7

<58회> 88

◆ 58회 모임안내

- 58동창회(회장 김기반) 월례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 유능회(회장 김동현)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일목회(회장 김원국) 매월 첫째주 목요일
- 테헤란모임(회장 도정화)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재경등산회(회장 박종호) 매월 첫째주 토요일
- 58기우회(회장 유준봉) 매월 첫째주 토요일
- 58타임월드모임(회장 이광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점심
- 대덕골(회장 배재성)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점심

◆ 회원동정

- 김덕수 : KB국민카드 부사장 취임
- 남창현 : LH공사 남북협력처장
- 윤석충 : LH공사 총무고객처장
- 안상욱 : LH공사 파주사업본부 건설사업 단장
- 김진기 :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 김현수 : 우리투자증권 천호동지점장
- 송인규 :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 조영업 : 인하대 의과대 외과 주임교수
- 홍원길 :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산학협력 중점교수(☎02-820-5939)
- 김영현 :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 전우홍 :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
- 안계훈 : 나사렛국제병원 진료원장
- 이현식 : NPA(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기반 조성본부장
- 신광재 : 토론수업 가이드북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창비刊
- 안대수 : TJB 악단장, 라이브바 <브라보 7080> 오픈, 대전 대덕구 종리동 376~8 (종리시장 서문 앞) ☎010-5407-5158
- 박용진 : <박비노기> 이전 경성큰마을 사거리 시온클리닉 8층 ☎042-489-7177, 010-8489-7178

- 송승진 : <송승진 색소폰 음악학원> 오픈 대전 동구 용전동 25-7 성산빌딩 5층 ☎ 010-8298-2844
- 신현중 : 무주군 안성면 일원 무주 반다골 전원마을택지 분양, 100평 이상 토지 분할 매매도 가능, www.mujubandigol.com ☎ 010-5227-0734
- 조남선 : 한국기원 대전지원 원장, 대전 서구 둔산동 1436, 석천빌딩 4F

◆ 연락처 변경

- 차재돈 : 010-3307-9244
- 임도빈 : 010-3138-2013

◆ 애경사

- 이근남 : 모친상 4.23
- 양문석 : 장모상 4.27
- 권오선 : 장모상 5.12
- 유왕근 : 부친상 5.15
- 이군주 : 장모상 6.5
- 김병기 : 장인상 6.9
- 김중길 : 부친상 6.11
- 김윤중 : 부친상 6.12
- 김창식 : 모친상 6.22
- 이일규 : 자훈 6.29
- 전우홍 : 장인상 7.1
- 한기형 : 모친상 7.2
- 이만중 : 장모상 7.4
- 김종선 : 장인상 7.7
- 고현장 : 장모상 7.8
- 안재성 : 부친상 7.14
- 이문기 : 모친상 7.15
- 강훈구 : 누님상 7.17
- 이광길 : 자훈 7.20
- 이원덕 : 장모상 7.27
- 홍기학 : 장모상 8.7
- 박종권 : 본인상 8.8
- 오응진 : 부친상 8.15
- 김경수 : 자훈 8.15
- 이계영 : 장모상 9.3
- 장익순 : 본인상 9.5

◆ 2013년도 58회 연회비 납부안내

- 연회비 : 100,000 원
- 재경이외 입금계좌 하나 622-910075-15105 금기반
- 재경입금계좌 국민 638701-01-432093 노명섭

◆ 58회 홈페이지 가입안내

- (현재 175명가입)
- 네이버 카페 DJH58 홈페이지 가입해 주 세요 가입시 반 이름 써주세요 등업시 쉽게 승인됩니다.

<59회> 88

◆ 회원동정

- 윤홍식 : 천안세관장 취임 4.24
- 이옥현 : 우즈베키스탄 대사 임명 6.14
- 남상인(기회장, 마리아이비인후과 원장): 8월 25일 대전적십자회관에서 남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닥터스멘토 적십자의사봉 사회와 함께 대전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닥터스멘토 메디컬 캠프 개최

<60회> 88

◆ 후배기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 전달
- 일시 : 2013년 9월 2일 14:00
- 장소 : 충동창회관
- 내용 : 72회 동창회에 100만원 전달

◆ 60장학회 2013 하반기 유자녀 장학금

- 전달
- 일시 : 2013년 9월 9일
- 내용 : 장학금 전달
- 故 윤종림의 자 나라중 1년 400,000 원
- 故 박현호의 자 대전고 3년 700,000 원

- 故 고정훈의 자 동주고 1년 700,000원

◆ 9월 월례회

- 일시 : 2013년 9월 12일 19:00
- 장소 : 이가참치
- 참여 인원 : 동문 30명

◆ 대전고 60회 골프회 출범

- 일시 : 2013년 9월 26일 11:30
- 장소 : 영동 뉴스프링빌2 C.C.(12:27 T/O)
- 내용 : 발대식 및 창립대회
- 인원

- 회장 : 차성오(010-5214-5918)
- 경기위원장 : 이성건(010-8815-7402)
- 총무 : 유병윤(010-3407-5598)
- 회원가입 및 참가신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람

◆ 애경사

- 김연수 : 부친상 7.11
- 김병희 : 부친상 7.17
- 고정훈 : 본인상 7.19
- 장진수 : 부친상 8.17
- 김 암 : 부친상 8.23
- 김영호 : 부친상 9.6
- 최충열 : 여훈 9.14

<63회> 88

◆ 63회 정기모임

- 일시 : 2013년 6월 27일
- 내용 : 국회의원 이장우 금일봉 전달

◆ 100주년 기념행사 임원 준비 모임 참석

- 일시 : 2013년 7월 2일

◆ 63회 기금 모금 계좌개설

- 월 5,000원 모금 진행 중
- 농협 302-0634-5392, 예금주 최병남

◆ 애경사

- 이강욱 : 본인결혼 4.27
- 조철정 : 모친상 7.31

<65회> 88

◆ 2013년 동기(대전)모임 공지

- 일시 : 매월 두번째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 별도 공지

◆ 애경사

- 강봉기 : 부친상 1.17
- 연규식 : 부친상 1.20
- 이재철 : 장인상 3.5
- 이창욱 : 부친상 5.4
- 최 산 : 장모상 5.12
- 박정규 : 장모상 5.27
- 박병돈 : 부친상 5.29
- 이재철 : 부친상 6.9
- 류재현 : 부친상 8.2
- 강두식 : 모친상 8.15
- 박우석 : 모친상 9.3
- 유병주 : 본인상 9.12

◆ 회원동정

- 홍현완 : 남대전농협 정림지점장 취임 2.25

<68회> 88

◆ 68회동창회 총회

- 일시 : 2013년 5월 24일 19:00
- 장소 : 풍성돌구이

• 임원개선

- 회장 김상수
- 총무 김준재, 성용제

◆ 모임

- 하계보양모임 : 2013년 7월 18일(둔산옥)
- 정기모임
- 2013년 8월 8일(블루오션뷔페)
- 2013년 9월 12일(어진숯불갈비)
- 동기가족 하계모임 : 2012년 8월 24일 (로하스야외수영장)

◆ 애사

- 서동석 모친상, 홍영선 장모상 : 8.30
- 최우현 : 부친상 8.23

<72회> 88

◆ 회원동정

- 이정국 : 검찰 사무관(행시48회) 전보 전주지검 군산지청 집행과장에서 대전지검 조사과 1호 사무관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7회 동창회

♣ 회 장 서 대 석

♣ 총 무 박 성 근

♣ 재경회장 박 상 규

♣ 재경총무 유 승 호

The 맑은 눈 안과 The Happy Eye

시력교정 수술전문

안 승 일 (63회) _ 원장
조 항 진 _ 원장
이 중 현 _ 원장

백내장 수술전문

진 규 현 (57회) _ 원장
김 세 윤 _ 원장

Tel. 042)476-0075

www.clearlasik.co.kr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9 신협중앙회 BD (둔산경찰서 옆, 정부청사역 4번 출구)

[주]한스코 HANSCO

www.hansco.kr

대표 정 창 근 (57회)

[본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3-2번지
Tel : 042)931-6300 Fax : 042)931-6304

[주조사업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 290-13
Tel : 042)623-2600 Fax : 042)623-2603

[기계사업부]



천연식품원료와 발효과학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신소재 개발의 선두기업!

SEROM Bio (주)새롬바이오

[대표이사 : 배 송 환(57회)]

TEL : 031)458-3541~2

디톡스리바 Detoxliva

- ▶ 아랫배가 늘 더부룩하고 팽팽하게 가스가 차시는 분
- ▶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아 있는 분
- ▶ 변이 묽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
- ▶ 배변능력이 약해 변 보실 때 힘이 들고 변이 딱딱하신 분
- ▶ 배변능력이 약해 아침에 배변을 못 보시는 분
- ▶ 음주후나 불규칙한 식사로 설사를 자주하거나 변을 잘못 보시는 분
- ▶ 얼굴에 기미가 있거나 얼굴피부가 거무티티 하신 분
- ▶ 항상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대원커뮤니케이션

최 병 익 (57회)

TEL. 031-9 4 8-0794

FAX. 031-9 4 8-0849

H.P. 010-6360-2092



- 기업사보 / 기관소식지 / 브로슈어 및 홍보 간행물 일체
- 판촉물 / 기념품 / 유치원·교회 각종선물

Reaching out... through IT®



전세계 IT Service

기업인 HTC Global Service가

여러분 곁에 IT 전문가로 다가갑니다.

- ERP 설치 및 유지보수(SAP, Oracle 등)
- Cloud 및 Big Data 관련 컨설팅
- 전세계 해외법인, 플랜트 ERP Project
- 각종 Web Application 개발 등

한국법인대표 유 성 준 (57회)

Tel : 02)6020-6826

Mobile : 010-5020-8765



HTC Global Services Korea Pvt. Ltd.,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6회 동창회

♣ 회장 남복현
♣ 재경회장 조동인

♣ 총무 김영완
♣ 재경총무 이종권

축복된 시작! 건강한 삶! 행복한 미래!



사랑과 희망의 손길로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미래여성병원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전문의

윤인석(56회) 홍영수(59회) 최영배 김영범
안광화 김보연 박상도 이종선

■ 미래여성병원

| 진료과목 |

일반 산부인과(24시간 전문의 진료),
복강경수술, 불임클리닉, 갱년기·요실금클리닉,
여성종합 건강검진센터, 성인병건강검진

■ 부설산후조리원

| 24시간 소아과전문의 상주 |
산모방(1인1실/가족실), 신생아실(크린룸시스템),
환경친화적인 휴게실, 산모전용 피부관리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오상근 한지연
임선아
유근수

• 마취과 전문의

유방외과
| 진료과목 |
맘모토, 유방성형, 유방암, 갑상선

■ 소아청소년과

| 진료과목 |
신생아 클리닉, 알레르기, 호흡기 클리닉,
소화기질환 클리닉, 소아피부과, 이비인후과

■ 내과

| 진료과목 |
여성 위·대장 수면내시경,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래여성병원
www.mlhospital.co.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27번지
부설산후조리원 : 042-487-3800

대표전화 : 042-471-7100 Fax : 042-471-5555
소아·청소년과 : 042-472-7070

행복한
시니어스 요양병원

원장 이창래(55회)

원장 박상태(56회)

원장 권선호(56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Tel. 042-253-5800



행복한 시니어스 요양병원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환자 및 그 가족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HACKERS
Education Group

상무이사 : 전 의 순 (56회)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는 해커스 교육그룹



올해의 브랜드대상
해커스교육그룹 수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외국어학원부문 1위

베스트셀러 1위 교재를 출간하는
해커스어학연구소

HackersBook.co.kr

외국어학원부문 1위
해커스어학원

Hackers.ac

대한민국 동영상강의의 중심
챔프스터디

ChampStudy.com

성공유학 연수전문
해커스 유학

HackersUhak.com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패스닷컴 공무원·경찰공무원

PASS.com

단 한번에 합격하는 비법
패스닷컴 공인중개사

PASS.com

합격의 절대 기준
패스닷컴 금융

PASS.com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
해커스 온라인 커뮤니티

해커스 토익 Hackers.co.kr
해커스 토플 goHackers.com
해커스 취업 HackersJOB.com
해커스 수능 JumpHackers.com



해커스 교육철학 Hackers.com

해커스는 올바른고 효과적인 길을 제시함과 더불어
핵심 정보의 공유에 가치를 세우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커다란 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高 ≡ 대전고등학교 제55회 동창회

♣회장 김 갑 동 ♣총무 남 상 구 ♣재무 조 춘 식

• 고 문 최정복, 안근식, 박원규, 오경섭, 이 현, 김성식
김동구, 김귀덕, 김윤성, 이성구, 나상연, 이동형
임기원, 정규형, 정재학

• 수석부회장 조성중

• 부회장 허옥헌, 최재옥, 김성관, 추연석, 김순태, 송근우
김우년, 조학현, 오안권, 오상준

• 이 사 박근태, 박석재, 유재일, 이길섭, 이행철, 장용순
조관희

• 감 사 한화교

≡ 高 ≡ 재경대전고등학교 제55회 동창회

♣회장 서 정 선 ♣총무 정 문 호